

2016 년 11 월 06 일 찾아오신 예수님(11) “오해와 왜곡 속에서”(요 7:14-24)

<도입>

요 7,8 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큰 축제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장막절)입니다(교안 뒤 테이블 참고). 이 절기가 오면 텐트 생활을 하면서 조상들의 광야 장막의 삶을 기억합니다. 이 축제 기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 거행되는 예식은 물의 예식, 빛의 예식, 성전을 바라보는 예식입니다.

물의 예식과 빛의 예식은 조상들이 40 년간 지나갔던 광야에서 물을 주셔서 목마름을 해소하시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7:37); ‘나는 세상의 빛이다’(8:12)이 이 두 예식의 배경 속에서 나왔습니다.

성전을 바라보는 예식은 초막절 7 일 동안 해뜨기 전에 예루살렘 성 동문지역까지 행진해 나가서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향해 섰다가 해가 뜨면 해를 등지고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미하는 기도를 합니다.

[1] 7 장: 초막절 시작과 중간

7 장은 초막절 시작 직전부터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14 절부터는 ‘명절의 중간’에 있었던 이야기임을 알 수 있고, 37 절을 보면 ‘명절 끝날’에 있었던 기사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초막절에 임하시는 마음은 결코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군중들과의 오해 관계도 있고(예: 6 장), 또 한편, 유대 지도자들과의 논쟁과 마찰이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2] 논쟁의 핵심

본문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과 율법에 대한 논쟁을 계속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모세에게 율법을 받았고 지킨다고 자부하지만 진정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하십니다(19 절). 율법을 참으로 지키려면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말이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을 비판/정죄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는지 그분의 의도를 알고 겸손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율법을 주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비판과 정죄가 따르지 않습니다.

21 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도 아래 한 가지 일을 하시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전신을 온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안식일에 베데스다 병자 치유(5 장)를 통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반대합니다. 그들은 난 지 8 일 째 받는 할례는 안식일이 되어도 행하지만 율법의 목적인 사람을 온전케 하는 일은 왜 금지할까요? 따라서 예수님은 너희가 이상하다고 반문하십니다. 누가 이상한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3]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들

외모로 판단한다는 것은 율법 규정에 따라서 예수님을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빠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입니다. 그 의도는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육체와 마음과 영혼, 그리고 인격(감정, 지성과 의지)과 관계와 미래에 관한 소망에 관한 것등을 포함합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사람과 사물과 상황을 대하는 것이 외모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모로 판단하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의도를 일상에서 적용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진리가 부차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주장이나 살아가는 방식이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도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한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5 장 강해할 때 율법주의와 동일한 맥락에 있는 삶의 여러 양태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종교적으로 율법주의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원칙주의, 형식주의, 완벽주의, 도덕주의 같은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주의라는 말의 의미는 ~이 본질이라고 주장하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모든 시도는 자기중심적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의 ~주의에 끼워 맞추어서 그분은 나의 구주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원칙주의자가 원칙에 충실하신 예수님의 일면만을 보고 믿으면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도덕주의자는 도덕적으로 최고의 수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전히 외모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 관점으로 보고 믿는 이 수준을 뛰어넘기가 **성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 안에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어렵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셨습니다. ‘공의’라는 말의 뜻은 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을 기본으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는데, 그분과 소통도 없고, 그를 향한 배려나 사랑이 없다면 그 관계는 어떠합니까? 가난하고 메말랐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다면 나는 공의롭지 못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공의롭게 판단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를 사모하고 추구하며 그분의 뜻과 의도를 풍요롭게 이루고자 애쓰는 태도와 행동 가운데 당신을 대해달라는 뜻입니다.

< 맺음 >

사람에게 저마다 다른 외모(생김새가 아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원칙, 형식, 완벽함, 도덕, 등 어떤 것이든 관계의 부요함을 해치면 공의롭지 못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공의롭게 대하며 믿고,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더욱 좋은 진리에 매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눔의 질문>

1. 나는 외모로 판단하는 일에 대하여 어떤 모습과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전에 나를 성찰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2.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이 그러합니까? 나의 주변에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있으면 말씀해 봅시다.

<이스라엘의 절기와 영적 의미>

축제명	기념 내용
유월절 (3-4 월)	양의 순산을 기원(유목민) + 야곱 후손들이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됨을 기념 + 어린 양 예수의 죽음 → 죄로부터 해방
오순절 (4-5 월)	봄 추수 감사절 +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 체결 - 국가로 탄생 + 성령 강림으로 교회의 탄생
초막절 (9-10 월)	가을 추수 감사절 + 광야 여정 후 약속의 땅 입성을 기념/감사. 광야 생활을 기억 + 메시아를 통해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됨